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6월 11일(화)

## 윤석열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플랜트 사업 협력, 교역·투자 확대, 항공물류·조선산업 협력 강조 -
-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 명 참석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6/11, 화)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으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확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이,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아쉬르굴리 베글리예프 대통령 고문,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 부총리, 라힘베르디 제파로프 대외경제은행장, 메르겐 구르도프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